

오피니언

다산포럼

금강



며칠 전 해남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박3일동안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 20명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만만한 일정은 아니었다. 절의 예법을 익히고, 108염주도 함께 만들고, 탁본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시간도 가졌다.

다훈이는 자기 만족보다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외고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영어학원을 다녔다. 엄마가 사준 영어원서도 열심히 읽었다. 중1때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다. 엄마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다"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가죽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순위가 떨어진 성적표를 가져간 날 엄마는 다훈이에게 삼한 욕설을 퍼부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엄마와 말리지 않는 가족들의 태도는 견디기 어려웠다. 다훈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책이 필요하다. 책상에 있는 A4용지 두

장짜리 유서가 놓여 있었다. "나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좋은 성적을 얻고 싶었는데 엄마는 친척들이 있는 데서 나에게 모욕을 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망가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는데 무조건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어요."

울음을 앓으며, 10대들의 사망 1순위가 자살인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이 땅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현실을 견디며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고민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들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책이

해법이다. 현대인들의 고뇌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속에서 과학력, 정보력, 물질력이 큰 소용돌이를 이끌고 있다. 그 속에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그림으로 그려려하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불교에는 선 수행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선은 자신의 근본적 평화로움과 자유의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가장 근본적 치유방법이다. 이를 체계화하고 현대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불교는 선 수행을 통해 구체적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법을 진행해왔다. 이를 '현전일념(現前一念)'으로 표현해 왔다. 우리 전통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도, 검도, 다도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도와 관련해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선은 하나임을 의미하는 '다산일미(茶禪一味)'가 강조되었다. 전통의 선 수행법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출가자 혹은 불교수행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청소년은 각자 처한 현실과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놓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근본적 치유방법은 부모의 청소년들에게 가는 기대감의 전환에 있지만 말이다. <해남 미행사 주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유광중

광주지역 지방공기업은 지난 1999년에 장기적인 생산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관리공사,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전국 최초로 합병해 현재의 '광주도시공사'를 발족하게 됐다. 이로 인해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사업 영역이 넓은 지방공기업이 된 것이다. 광주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체육시설 및 주차장운영, 환경사업, 장묘사업 등 광주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족 이후 꾸준한 경영성장으로 일약한 광주시의 재정에도

광주도시공사 시민 행복위해 혁신하겠습니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일부 지방공기업의 통폐합, 조직축소, 각종 제도개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경영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기반과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혁신정책은 지역 및 개별 공기업의 특성상 적용의 한계와 그 효과에 있어서 당초 취지만큼의 성과기대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광주도시공사가 발표한 선진화 계획은 타인의 강요가 아닌 공사 스스로의 자발적인 계획이다. 재정상태와 사업구조, 조직과 인력 등 경영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진단을 토대로 전체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피나는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여 만든 스스로의 계획안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계획서의 공신력을 더욱 배가시켰다. 도시공사의 선진화계획은 재정상황, 사업구조, 조직과 인력 등 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상세히 제시했다. 개선계획은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 성과목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제시했으며 '4대 전략 및 20대 핵심과제'와 '상환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선진화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했다. 4대 전략목표는 '재무안정성 확보, 튼튼한 경영기반 구축, 성과위주의 조직관리, 신뢰의 기업문화 구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경영성과 증대와 미래 지속가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은 물론 향후 계획 중인 사업들

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사업, 어려운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보다 활발히 개척하고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결재단계와 조직, 상위직급의 축소는 임직원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 나은 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고강도 자구노력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았으며, 그 책임수행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공사의 경영성과는 시민이 진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이 있을 때 공사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스스로 뼈를 깎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기고



김운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인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과정에서 해양경찰 희생자가 나온 것은 2008년 9월 고(故)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떨어져 숨진 지 3년여 만이다. 중국 어선 단속은 이제 단속을 넘어 전투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선

해양경찰 인원·장비 총원 시급하다

단을 꾸려 불법 조업이 적발되면 배들끼리 서로 바닷물 튀고 집단으로 대항하는가 하면 선원들이 죽봉·도끼·쇠괴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단속하는 해양경찰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해역에서 단순한 불법 조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해적과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들의 불법 조업 단속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 해양경찰이 올 들어 매일 한 척 이상을 나포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행위를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흉포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으로 중국당국과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에 앞서 해결 수준에 이른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해역 내에서 불법 조업행위를 하면 반드시 단속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1만 여명도 되지 않는 해양경찰의 인력과 장비로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해양경찰이 사망하는 이번 사태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는 물론 양국 국민 간의 감정도 악화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양국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국민에게 해양경찰의 불법 조업 단속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는 해양경찰관들이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부터 해양경찰의 인원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해양경찰도 중국 어선 단속과정에서 이제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르는 장비와 예산의 충원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찰관들이 우리나라 해양의 수호자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해양경찰을 응원하는 문화도 형성되어야 한다. <조선이공대학 해양경찰과 교수>

인터넷 사생활 침해·인격 모독 강력히 처벌해야

작년 말에 중학생 제자와 30대 여교사가 성관계를 맺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더 큰 충격에 몰아 넣은 사건은 그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여교사의 미니홈피를 찾아내 이곳에 있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남편과 어린 자녀 등 가족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날랐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듯 여교사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일에 수많은 네티즌이 경쟁적으로 매달리고 서로 뺏아냈네, 무슨 자료가 어디에 있네 하는 식으로 댓글과 경성심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나 여

필자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정보가 떠돌아다니는걸 보고 아이들이 혹시나 그럴 열어볼까봐 3~4일간 아이들의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참 부질없는 방책이긴 했지만 부모로서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그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부모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교사의 행위가 잘못되어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런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나 여

교사의 사생활을 함부로 파헤쳐 인격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남편과 자녀의 신상까지 속속들이 공개되는 행위는 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 ▲심희수·광주시 북구 대촌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김정일 사망, 정부 위기관리 만전 기해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30분 급병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한반도 정세 흐름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김정일 사망은 무엇보다 북한 내부 체제 준비를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시계 제로'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반반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은 아직 28세에 불과해 김정일이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을 통치하던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기에 몰린 김정은이 체제 강화를 위해, 또는 김정은과 주변 세력 간의 권력 암투로 인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급격한 북한 체제의 붕괴로 남

북 간에 언제, 어떻게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 역시 '전면 스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먼저 북한 내부와 국제정세를 주시하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북한이 오관을 하지 않도록 자극해서도 안 된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신중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 긴밀한 정보 교환 등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남북한만이 지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절대 동요하지 말고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김정일 조문(弔問) 등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빚는다면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국민의 일치단결만이 국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30년 된 영산강 하구둑 기능 재설정하라

영산강 하구둑이 12월로 족조 30년을 맞았다. 하지만, 현재의 달라진 환경에 맞도록 하구둑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비롯, 침수피해와 농업용수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영산강 하구둑은 '가뭄·홍수 없는 전천후 농토 개발'을 슬로건으로 지난 1978년 1월 공사를 시작해 1981년 12월 완공됐다. 폭포·함평·나주·무안 등지에 하루 8만㎥의 상수도 및 하루 5만㎥의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도맡아 전담 서부권 젖줄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 나뭇배로 1시간 걸리던 폭포~영암 구간을 20분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갈수기 물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축산분뇨 등의 유입으로 영산강 하류 수질은 4~6급수로 전락했다. 식수는커녕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나빠졌다. 이로 인해 하구둑을 다시 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기상변화로 홍수 시 영산강 일대에는 수해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 지난 1989년과 2004년 태풍으로 광주·나주·함평 등지에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었다. 폭포~영암을 잇는 유일한 도로는 심각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완공 당시와 환경이 그만큼 크게 변화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리모델링을 나서 2012년까지 영산호와 영암호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영산~영암호 간 연락 수로를 넓혀 갑문 수호 간 홍수량을 분배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차제에 하구둑 완공 30년의 징과 등을 분석해 현재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찾아야 한다. 가뭄·홍수 예방, 생태환경 개선은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수갑문, 교량 등을 관광자원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확천금'에 대한 환상은 똑같다. 조들린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된다면 그 만큼 생기가 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꿈이 현실로 바뀌는 것, 바로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복권의 역사는 매우 길다. 기원전 3세기 때 진시황(秦始皇)은 만리장성 축조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복권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연회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었다고 한다. 5대 황제 네로는 수시로 여러 사람에게 추첨으로 직업이나 땅, 노예, 선박 등을 나누어 주었다.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이 복권을 통해서 직업이나 배를 얻게 된다면 그 희열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을 복권했다. "준비하고, 쓰세요"라는 멘트가 익숙한 주택복권은 집값은 서민들을 일주일 동안 가

슴 부풀게 만들어 복권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후 다양한 복권이 등장했지만 뽀뽀뽀뽀뽀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로또'야말로 복권의 대명사다. 가장 폐쇄적인 북한에도 복권은 있다. 지난 2003년 5월부터 발행된 '인민생활공제'가 그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한국 전쟁 이후 50년 만에 발행된 북한 최초의 공제다.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무이자 적금이며, 대신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 추첨을 통해 1등부터 7등까지 당첨금과 원금을 일시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액면가 500원, 1000원, 5000원의 세가지 종류가 있으며, 1등에 액면가의 50배까지 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최근 로또와 연금복권 광풍으로 관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복권 발행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에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서민들의 예원이 녹아있기에 더 시급한 소식이다. /특기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